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자	부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보도 일시	2022. 6. 21.(화) 14:00	배포 일시	2022. 6. 21.(화) 14:00
담당 부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	책임자	학예연구관 황은순 (055-320-6830)
		담당자	학예연구사 김혁중 (055-320-6833)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6월 24일 금요일, "『삼국사기』의 가야인식" -

국립김해박물관(관장 이정근)은 2022년 가야학술제전의 첫 번째 심포지 엄으로 '『삼국사기』의 가야인식'을 6월 24일(금)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야사 기초 문헌자료 연구를 목적으로 가야사학회 (회장 이영식)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는데, 『삼국사기』를 주제로 한다. 『삼국사기』는 적지 않은 가야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기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삼국사기』에 담긴 가야 관련 기사와 내용을 상세하게 해부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가야문화 연구 성과와 비교 검토하여 『삼국사기』의 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덕재 단국대학교 교수의 '『삼국사기』의 가야인식 '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삼국사기』초기기사 속 가야관계기사의 이해(김양훈, 대성동고분박물관)', '『삼국사기』가야의 용례분석과 인식의 변화(백진재, 양산시청)' '『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 보이는 가야(이형기, 해양수산부)', '고고학으로 본『삼국사기』의 가야(배효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6월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로도 학술제전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은 가야문화 복원에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심포지엄이다. 올해 가야학술제전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가

야 선주민의 도구 -석기 (7월 21일)', '환호의 성격과 의미(10월 28일)',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Ⅱ - 토기문화(11월 25일)', '가야의 장신구 I-유리 (12월 9일)'로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가야문화 연구와 복원의 초석이 될 가야학술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붙임>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관련 포스터

붙임1. 홍보물

